



(주)유니온무역상사 서민정 대리

# 챔피언십 선수들의 숨은 공헌자

서민정 대리는 (주)유니온무역상사의 자랑거리다. 1년 전 데몬스트레이터로 입사한 그녀는 기술에 대한 욕심이 남다를 뿐 아니라 매사에 적극적이고 열심이어서 회사로서는 그녀가 어떤 일을 맡아도 마냥 든든할 따름이다. 요즘 그녀에 대한 칭찬이 '유니온'의 울타리를 넘어 업계 전체로 번지고 있다.

소문의 진원지는 지난 7월 미국에서 개최된 월드페이스트리팀챔피언십. 처녀 출전한 국제대회에서 한국팀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은 (주)유니온무역상사의 아낌없는 후원 덕분이다. 그중에서도 밤 12시 퇴근도 마다하지 않았던 서민정 대리는 정영택 팀장을 비롯한 선수 모두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숨은 공헌자다.

그녀는 한국팀의 연습이 막바지에 달했던 2개월 동안은 주변 사람들이 '네가 대회에 출전하냐고 물어볼 정도로 모든 개인적인 스케줄을 뒤로 미룬 채 연습에 필요한 재료나 도구가 떨어지지 않도록 잔 걸음으로 쫓아다녔다.

"이왕 돕기로 했으면 확실히 도와야 한다는 게 저를 비롯한 회사 식구들의 생각입니다. 많은 선진기술을 어깨 너머로 배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서 오히려 제가 선수들에게 감사해요."

요즘 그녀는 (주)유니온무역상사가 취급한 양과자 관련 제품의 한국형 배합 개발 때문에 또 한번 정신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다.

"우리 회사가 취급할 제품은 일단 내 손을 한번 거쳐야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어요. 뿌듯한 마음에 힘든 지도 잘 모르겠어요. 데몬스트레이터는 딱 제 체질입니다."

글·김미선 기자 | 사진·주현진

프랑스 국제 전시협회 한국사무소 김선의 소장

# 프랑스와 한국의 베이커리 메신저

프랑스국제전시협회 한국사무소 (정식 명칭:

PROMOSALONS COREE, 이하 프로모살롱) 김선의 소장은 (사)대한제과협회(이하 협회)와 15년이 넘는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1988년에 입사한 그녀는 협회가 프랑스의 대규모 제빵 전시회인 '유로빵(Europain)'에 참여할 수 있도록 든든한 다리 역할을 해왔다.

협회에서 유로빵을 관람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방문 절차

종각21C제과제빵전문학원 임선희

# 뒤늦게 열매 맺은 학원강사의 제과인생

‘올리브유를 첨가한 빵 반죽의 물리적 특성 및 제품 품질 특성’. 지난 8월 건국대학교 농축대학원 식품공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종각21C제과제빵전문학원 강사 임선희 씨의 논문 제목이다. 제과·제빵의 심도 있는 공부를 위해 지난 2000년 바쁜 시간을 쪼개 대학원에 입학한 그녀는 학원 강의와 학업을 병행하면서 열심히 공부한 결과 빛나는 석사 모를 썼다.

임선희 씨는 석사 논문 주제를 최근 트렌드에 따라 건강에 좋은 올리브유에 관한 것으로 일찌감치 결정했다.

“마가린이나 쇼트닝 대신 올리브유를 식빵 등의 실용 제품에 적용했더니 맛과 모양에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국내에 올리브유에 관한 자료가 부족해 여러 도서관과 기업체를 다니며 관련 서적과 논문을 구했다는 임선희 씨. 학원 수업이 끝난 뒤 실습실에 혼자 남아 이론적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제품을 만들어보고 연구한 끝에 논문이 완성됐다.

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고 스튜어디스로 일했던 독특한 이력의 그녀는 1999년 학원 정규반을 수료한 뒤 곧바로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좋아하는 분야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남을 가르치려면 부단히 공부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임선희 씨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충실하고 싶은 소박한 희망을 갖고 있다. 다만 뒤늦게 시작한 제과·제빵 공부에 대한 욕심은 그 누구보다도 크다.

글·허윤정 기자 | 사진·전문식

를 마련해 주최측과 연결해주고 제과 업체들의 참여를 돕는 것이 김선의 소장의 주요 업무. 그녀의 빛나는 노력의 결과로 협회는 유로빵이 열릴 때마다 연수단을 파견하게 됐고 지난 2002년에는 처음으로 ‘제빵월드컵’ 대회에 참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8월 31일 김선의 소장은 2005년에 열리는 유로빵 홍보를 위해 한국을 찾은 주최측 임원들과 협회 김영모 회장의 조찬 모임을 마련했다.

“유로빵 주최측에서 제과협회 김영모 회장을 박람회 기간에 개최되는 ‘크로강 부슈’ 대회의 심사위원으로 공식 초청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4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루이르사프르컵’ 대회에서 어이없는 심판 판정으로 3위에 그친 한국팀에 대한 사죄로 이와 같은 배려를 한 것”이라고 덧붙인다.

2005년 유로빵에 많은 인원이 참가했으면 좋겠다는 김선의 소장. 그녀의 노력으로 많은 제과인들이 유로빵을 보기 위해 프랑스를 찾을 예감이 든다.

글·허윤정 기자 | 사진·전문식

